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84장 다같이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고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시편 43:1-5 인도자

- 1 하나님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 2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지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 4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설 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3:1-5)

시인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질문한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불평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한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사실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인생은 불공평하고 때로 슬프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메말라버리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42-43편이 이 질문에 대해 교훈을 준다. ▶두 시편은 본래 하나였고 고라 자손이 쓴 것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울부짖는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해질 수 있다. 신앙의 위인들도 우울증을 겪었다. 모세는 떡과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 때문에 우울해졌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 승리한 뒤 이세벨의 박해와 위협이 계속되자 자포자기했다. 다윗도 많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면서 좌절감을 표현했다. ▶우울증의 원인은 기질과 큰 관련이 있다. 내성적인 사람이나 예민한 사람이 영적 침체에 민감하다. 육체적인 상태 즉 질병, 약함, 피곤, 과로,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유발되기도 한다. 마귀는 육체적 약함을 영적 약함으로 간주하게끔 유도한다. 불신앙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처지에 주목하는 순간 우울증에 빠져 버렸다. 그 밖에도 과거에 대한 병적인 관심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울증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이유는 우울증이 영적 침체(spiritual depression)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시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시42:1)라고 기록되어 있다. 갈급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는 모습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뚜렷한 이유 없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찾아온다. 사탄은 기질적 우울증을 영적인 침체로 바꾸려고 한다. 정서적 메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메마름으로 바꾸려고 한다. 따라서 우울증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 42편에서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애달파하고 우울해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우울증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한다. 우울증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은 왜 신앙인에게 좌절과 낙심과 우울증을 주시는가? ①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계획일 수 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6,7). ②이런 상태에 처하면, 자아에게 올바르게 말해야 한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자기에게 말해야 한다. 즉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③탄식과 한숨을 기도로 바꾸라. 시 42편과 43편의 주된 배경은 좌절과 절망으로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형태로 올려드린다. 탄식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건져 내실 것이다. ④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드려야 한다. 빌립보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해야 한다.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오고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렇게 외쳐라. “나는 너를 이미 처리하였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상황의 주인이 되라. 환경은 항상 변한다. 조건은 일시적이다. 거기에 너의 마음을 매달지 말라.